

2019 미래혁신포럼 2019 Future Innovation Forum

## 공생공락의 도시 커먼즈를 위하여

Toward the Urban Commons of Conviviality

2019년 10월 1일 (화), 서울혁신파크

October 1, Tue, 2019, Seoul Innovation Park

---

세션 3. <도시 커먼즈와 공동생산 2> 16:30~18:45

###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지식과 기술의 커먼즈: 도심제조업을 도시전환과 연결하기

협력 단체 :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내용연구소/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이메일: pinehill@snu.ac.kr

#### 배경

도시의 위기와 회복력: 기후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폭우나 폭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그 부정적 영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가 도시 위기로 전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도시의 회복력은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재구성하는 체제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

도시의 기회와 공유: 시민들의 일상이 담긴 도시는 전환의 대상이자 동시에 전환을 가능하게 할 기술과 지식, 실천을 구체화할 관계적 역량을 보유한 자원의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는 전환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사회적 실험이 펼쳐져야 할 공통의 공간이며, 그것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기술에의 접근 기회가 독점이나 불평등 없이 시민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개발은 도시 공동의 자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 목적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적 자원, 제도적 경로를 탐구하고, 그것을 공통 자산으로서 공유하기 위한 전환 모델을 시민들의 실험 활동으로서 기획한다.

전환 과정의 기획에 있어 시민들의 실험적 일상적 실천이 새로운 전환 체계를 구성하는 데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으로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권, 금융, 부동산, 산업 제도 등, 기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한 전환 경로상의 체제적 문제들을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 찾아내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실험과 구체적 실천 활동을 계획한다.

## 목표

포럼의 참여 주체들은 회복력 있는 도시 마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성대골 시민들과 서울의 도심제조업이 가진 기술-지식을 연계하는 사회적 실험을 구상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그 구상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아래와 같은 질문들과 그 사회적 실험을 진행할 과정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커먼즈로서 도심제조업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식은 무엇인가?
-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기획되어야 할까?

<세션 기획자, 발표자> 심한별

서울 도심부 산업활동 변화와 도시형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의 사회적, 공간적 특징이 주요한 연구 주제이며, 제조업의 새로운 변화와 공간적 재구조화를 도시회복력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학, 경영학, 도시계획학 학위를 마치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도시계획 및 설계 연구방법론, 디자인의 사회적 과정, 디자인 공공성 이론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으며, 도

시상공업연구자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발표자> 김소영

성대골마을 주민 운동의 조직자이자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운동의 두드러진 활동가이다. 성대골마을에서 에너지 전환리빙랩,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설립, 에너지수퍼마켓 설치 운영 등 열정적인 활동의 성과로 국내외에 대표적인 주민운동 사례로 알려지고 그 결과 다양한 위치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 분과 위원, 동작구 환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발표자> 김상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다니다 <내용연구소>를 설립하여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게임 기획자, 잡지 편집자, 마케팅 기획자, 브랜드 개발자, 서점 기획자, 카페 주인, 인쇄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시 기획자 등의 일을 하며 문화기획자로 일을 해 왔다. 문화와 예술의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도시제조업과의 연결성, 지역적 특성의 문화적 연결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의 자생력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문화와 예술이 사회와 산업에 기여하는 방법을 ‘문화기획’으로 풀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자> 에치오 만치니

이탈리아 디자인 학자이며 사회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작업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대학의 명예교수, 런던대학교 (University of Arts London) 의장, 현재 ELISAVA의 사회혁신 디자인 교수, Tongi University 및 Jiangnan University의 초빙교수이다. 또한 만치니는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인 DESIS의 설립자이다.

<토론자> 김목한

계획 및 공공정책 박사, 서울연구원의 시민경제연구실의 연구위원이다.

<토론자>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

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에너지 전환, 도시 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쓴다. 지은 책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옥중 수고와 혁명의 순교자>, <정의로운 전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를 되찾자>, <GDP의 정치학>,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함께 옮김) 등이 있다.

<토론자> 한광현

오늘공작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당 당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Session 3: Urban Commons and Co-Creation 2

### **Tech-Knowledge as Urban Commons for Resilient Community: Connecting Urban Manufacturing to Urban Transition**

#### **Background**

Urban Crisis and Resilience: Climate change might cause unpredictable urban crisis. As well as heat waves and unprecedented heavy rainfalls we are experiencing recently, negativ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would become the everyday reality that citizen might suffer from. Urban resilience, the ability to prevent crisis generation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from those impacts, requires a wholistic transition approach that reorganizes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Urban Opportunity and Commons: Not just the object subordinate to the transition, the city is the precious resource reservoir that can generate knowledge for transition, as well as it retains relational capability of urban community. It should be a common field that accommodates social experiments for the ideas of urban transition. At the same time, it must be able to secure the equitable accessibility for all citizen to the knowledge and opportunity for transition rather than it permits monopoly or inequality. Crea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corresponding institutions for urban transition needs to claim itself as urban commons by going beyond the limits of being market oriented and technology driven.

#### **Objectives**

To design a social experiment in everyday lives of citizen that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institutional resources as well as knowledge for urban transition to resilient community, and that enables to commoning them as the asset for community

To plan the experiment process so that it could set just and equitable guidelines in terms of social virtue and identify multiple obstacles that stand in the way of attempts for transition

To organize citizens' participatory researches and experiments inquiring social challenges in the pathway to urban transition such as legislative, financial, industrial, property institutions other than just technical issues

### **Goals**

Presenters of this session would suggest a social experiment that combines the efforts for urban transition of Seongdaegol community with tech-knowledge of urban manufacturing in Seoul. This session aims to build the collective wisdom from participants and citizens for the experiment and to discuss those challenges such as;

- What virtue of urban manufacturing would count as the commons?
- What tech-knowledge would matter for the urban transition to resilient community?
- How should the community's experiment be organized in the path of tech-knowledge production for urban transition?

<Session Organizer, Presenter> SHIM, Hanbyul

He is a research fellow at SNU Center for Asian Societies. He received a PhD in urban planning for his empirical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urban morphology and economic activities. His research theme has been social, spatial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ctivities within urban area. Currently, his research focuses on reinterpreting changing nature of manufacturing and its spatial reorganization in terms of urban economic, social resilience. His backgrounds are architecture (BA), and business administration (MA). After PhD course, he served as a visiting scholar in University of Columbia (Dept. of Geography). He gives lectures on Research Methodology in Urban Planning and Design, Social Processes of Designing, Public Esthetics of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er> KIM, Soyoung

She has been a prominent figure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 as a citizen leader in Korea. She organized various activities and programs such as campaigns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deactiv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etc., and devoted enormous efforts to establish energy self-sufficiency of her community, Seongdaegol. Due to her enthusiastic career, currently she is titled as multiple positions such as the Chairman of Maeul Dot Salim Cooperative, a member of Committee of Energy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Gov., and a member of Environment Committee of Dongjak-gu.

<Presenter> KIM, Sangyoun

He founded Naeyong Research Institute in 2005, when he was studying sociology at Yonsei Univ. He would present himself as a cultural designer, the fields of which ranges from game, magazine, marketing, brand developing, book store, printing, interior, and to a cafe owner. He is interested in the connection of art and culture to urban manufacturing which is under-evaluated, and cultural connectivity to local textures. He believes in the autogenousness of the art and culture by assuming economic value and social effect and the role of cultural planning to attribute to society and industry.

<Discussant> Manzini, Ezio

He is an honorary professor at Politecnico di Milano, Chair Professor at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and presently Distinguished Professor on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t ELISAVA, and guest professor at Tongji University and Jiangnan University. Manzini is the founder of DESIS, an international network on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Discussant> KIM, Mook Han

Dr. Kim has a PhD in planning and public policy and works as a research fellow at Seoul Institute, Dept. of Civil Economy Research.

<Discussant> KIM, Hyunwoo

He served at Korea Labour and Society Institute, Democratic Labour Party, New Progressive Party. Currently, he works at Energy and Climate Policy Institute as a researcher and writes articles about energy transition, urban politics, public transportation, democratization of governance. He wrote several books: <Antonio Gramsci-Prison Notebook and the Martyrs for Revolution>, <Just Transition>, including translation of <Reclaim the State>, <Gross Domestic Problem>, <Systematic Alternatives>.

<Discussant> Han, Kwanghyun

He works at Oneul GongJakso, and Green Party.